

# 국제 정보격차(digital divide)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업유형\*

The Foreign and Domestic Projects for Bridging the International Digital Divide

최석범(Seok-Beom Choi)\*\*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이정민(Jeong-Min Lee)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정재우(Jae-Woo Jung)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 Abstr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rought neck-breaking speed of changes to the global society in 20th century. The more the speed of change accelerated, the more widened the digital divide betwee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solving digital divide, the current situation and status of projects for bridging the international digital divide around the world is not fully research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foreign and domestic projects for bridging the international digital divide and to suggest the efficient ways of domestic projects for solving the international digital divide.

Key Words: Digital Divid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본 연구는 200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기자재 구입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수행한 결과임.

\*\* 주저자임

## I. 서론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치·경제 등 사회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이 도입될 뿐만 아니라 IT분야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게 되어 기존의 고용구조의 변화와 소비자중심의 경제체제화 등 경제전반의 틀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산업사회가 이러한 고도의 IT정보화사회로 전환하면서 정보의 공유에 있어서의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정보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해석에 따라 사회적인 불평등을 나타내는 정보불평등(information gap)으로 쓰이기도 하고 정보화사회에서 사회적인 활동의 기회를 아예 박탈당한다는 의미에서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

IT와 인터넷이 주도하는 정보사회의 이상은 정보를 통해 경제적 풍요를 증진시키고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사회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정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간의 빈부격차는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정보이용이 기본적인 생활방식이 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개인적으로, 정보소외계층은 지식과 정보의 이용이라는 본질적 권리를 제약받을 뿐 아니라, 직업선택과 소득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빈부격차와 문화적 단절이 심화되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의 공급이 제한되고 사회복지비용 등이 증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격차 해소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정보부자와 정보빈자간 정보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격차의 조기 해소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생산적 복지실현의 전제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 모두가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정보 선진국 건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범부처적인 종합적·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부처간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통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환경, 정보활용 촉진 등 다각적인 정보격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 뿐만아니라 민간부문, 정보소외계층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개도국(동북아지역)과 선진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내의 사업실태를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 II. 정보격차의 의의와 국가간 정보격차 현황

### 1. 정보격차의 의의와 배경

#### 1) 정보격차의 의의와 유형

지난 10여년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된 정보기술은 정보를 가진 자(inforamtion-haves)와 가지지 못한 자(information-havenots)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다.<sup>1)</sup>

일반적으로 정보격차는 각종 정보기술과 정보통신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사회에서 중심적인 사회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 그리고 점유수준에서의 격차로 발생하는 계층간, 소득간, 성별간, 지역간, 국가간 불평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OECD의 경우에는 정보격차를 “여러 사회-경제적 계층의 개인간, 가정간, 기업간 그리고 지역간에 나타나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에 대한 접근기회 및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위한 인터넷 활용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다.<sup>2)</sup>

한국전산원은 정보격차를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양분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sup>3)</sup>

<표 1> 정보격차의 유형

| 정보격차의 측정기준 | 정보격차의 종류  |   |
|------------|---|---|
| 정보격차의 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간</li> <li>· 세대간</li> <li>· 민간과 공공기관간</li> <li>· 국가간 정보격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층간</li> <li>· 지역간</li> <li>· 장애인과 일반인간</li> </ul> |
| 정보격차의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날로그 정보격차</li> <li>· 일상생활 정보격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정보격차</li> <li>· 업무관련 정보격차</li> </ul>           |
| 정보격차의 심화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취약</li> <li>· 정보계층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단절</li> <li>· 정보계급화</li> </ul>                   |
| 정보격차의 메카니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접근격차</li> <li>· 정보생산격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활용격차</li> </ul>                                  |

자료: 한국전산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방안보고서」, 2002.12, p.6.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1)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사회의 IT개발 협력동향」, 2001.07, p.3.  
 2) OECD,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2001, p.5  
 3) 한국전산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2000.12, p.6.

정보통신기술의 놀라운 성장세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확산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고 있다.<sup>4)</sup>

## 2) 정보격차의 주요원인

정보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R&D 등 기술관련 부문과 기간통신망, 정보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격차이다. 정보통신인프라에 대한 국가간 투자여력의 차이가 정보격차로 귀결된다는 점인데 개도국의 경우 도시화의 진전과 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통신수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정보인프라 환경으로 기본적인 정보접근 기회는 물론 서비스에 대한 접속성공률이 낮아 통신적체현상이 심화되는 등 정보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룸으로써 선진국과의 비교에서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정보격차의 원인으로 후진국의 정보통신인프라의 독점성을 들 수 있다. 즉,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문의 민영화를 통하여 경쟁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맞는 규제환경의 정비로 1980년에 이미 시작하였다. 그러나 후진국은 민영화·경쟁구조·규제환경의 정비의 미비로 정보통신산업의 독점도가 높기 때문에 통신망에 대한 접속료가 높게 나타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접근의 기회가 줄어들어오는 것이다. 이외에도 IT전문가, 정보이용능력, 교육수준, 콘텐츠 개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보격차에 영향을 주고 있다.<sup>5)</sup>

<표 2> 지역별 정보인프라 및 기술투자 지표비교

| 지역        | 정보인프라투자<br>(1인당 US\$) | GDP대비 R&D<br>투자 | 기술전문가<br>(백만명당 수) | 과학자(백만명당 수) |
|-----------|-----------------------|-----------------|-------------------|-------------|
| OECD      | 129.1                 | 1.8             | 1,326.1           | 2,649.1     |
| 중동        | 19.93                 | 0.4             | 177.8             | 521.0       |
| 동아시아*     | 13.49                 | 0.8             | 235.8             | 1,026.0     |
| 중남미       | 28.28                 | 0.5             | 205.4             | 656.6       |
| 동유럽·체제전환국 | 22.89                 | 0.9             | 577.2             | 1,841.3     |
| 북아프리카     | 11.56                 | 0.2             | 76.1              | 324.3       |
| 남아시아      | 13.49                 | 0.8             | 59.5              | 161.0       |

\*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를 포함한 아·태지역평균

자료: World Bank, "The Networking Revolution Networking Revolution : Opportunity and Challenges for Developing Countries," *InfoDev Working Paper*, 2000, p.16.

## 3) 국제간 정보격차의 해소필요성

국제간 정보격차의 해소필요성이 국제적으로 논의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sup>6)</sup> 첫째, 국가간 정보격차는

4) 강홍렬·차남경·강상현·김은미,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경제적 함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12, p.19.

5) 정인익·박성훈·김태은·백지원·나항렬, 「세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현황 및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12, p.31.

세계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간 정보격차의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제적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격차는 자본격차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보격차의 해소가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둘째, 글로벌 디지털시대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정보와 지식이 광범위하고도 빠르게 보급·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정도가 부가가치창출과 경쟁력 제고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인프라나 이의 활용능력이 없는 국가들은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보인프라 구축의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개도국의 경우에 이러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개도국의 경우에는 정보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투자재원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격차해소사업을 통하여 이러한 저개발국에게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경제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4) 국가간 정보격차예소정책의 목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간 정보격차의 해소정책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OECD, World Bank는 소득격차의 해소차원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보격차가 존재할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신경제의 혜택인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의 계고효과가 국가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며, 정보기술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생산요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정보기술보유국과 미보유국 사이에 경제성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즉, 국가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격차를 우선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IMF, WTO는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의 반세계화운동에서의 반발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가간 정보격차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를 위해 개도국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ASEAN, ASEM, APEC 등은 지역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격차의 해소정책들은 지역간 협력체들의 결속력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및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주무장관회의에서도 ASEM 및 APEC차원에서 회원국간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 2. 국가간 정보격차 현황

###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격차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점차 생활화되어가고 있으나 개도국에서는 극소수의 인구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과 OECD 국가의 인터넷 이용률은 30%가 넘으나 아랍국가, 아프리카, 남아시아 국가에서의 인터넷 이용률은 1%에 못 미치고 있어 정보접근상의 차이가 많다.

<표 3> 지역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

| 구분              | 인터넷 이용률(전체 인구 대비) |      |
|-----------------|-------------------|------|
|                 | 1998              | 2000 |
| 미국              | 26.3              | 54.3 |
| OECD 국가(미국 제외)  | 6.9               | 28.2 |
| 중남미 국가          | 0.8               | 3.2  |
| 동아시아 및 태평양연안국가  | 0.5               | 2.3  |
| 동유럽             | 0.8               | 3.9  |
| 아랍국가            | 0.2               | 0.6  |
| 아프리카(사하라 사막 이남) | 0.1               | 0.4  |
| 남아시아            | 0.04              | 0.4  |
| 전 세계            | 2.4               | 6.7  |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p.40.

전화 보급률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과 OECD 비회원국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OECD 회원국은 1998년에 70%이상의 사람이 고정 및 이동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비회원국들은 약 8%밖에 보급되지 않고 있다.

<표 4> 인구 100명당 전화통신 서비스(고정+이동) 보급률 격차

| 구분     | 1990 | 1995 | 1996 | 1997 | 1998 |
|--------|------|------|------|------|------|
| OECD   | 41.1 | 52.2 | 57.5 | 64.1 | 72.1 |
| 비 OECD | 2.7  | 4.7  | 5.5  | 6.6  | 7.8  |

출처 : OECD,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2001, p.7.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아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통신부문별 국가정보화지수의 순위에서 한국은 2001년에 1991를 하였고 중국은 45위, 태국은 46위, 필리핀은 47위를 차지하였다.

<표 5> 통신 부문 지수 및 순위

| 구분      | 국가정보화지수 |      |      |      |      |      |      | 국가정보화지수 순위 |      |      |      |      |      |      |
|---------|---------|------|------|------|------|------|------|------------|------|------|------|------|------|------|
|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대만      | 56      | 55   | 57   | 71   | 84   | 88   | 90   | 22         | 25   | 25   | 19   | 8    | 6    | 5    |
| 홍콩      | 90      | 92   | 94   | 94   | 92   | 89   | 87   | 6          | 5    | 4    | 4    | 3    | 5    | 6    |
| 일본      | 80      | 90   | 91   | 87   | 82   | 78   | 77   | 12         | 7    | 6    | 6    | 12   | 16   | 15   |
| 미국      | 93      | 90   | 88   | 86   | 82   | 81   | 77   | 5          | 8    | 7    | 7    | 11   | 11   | 18   |
| 한국      | 65      | 69   | 77   | 84   | 86   | 79   | 77   | 18         | 15   | 13   | 9    | 7    | 14   | 19   |
| 싱가포르    | 72      | 70   | 78   | 73   | 74   | 77   | 72   | 13         | 14   | 12   | 18   | 20   | 17   | 21   |
| 말레이시아   | 34      | 33   | 30   | 25   | 22   | 21   | 22   | 27         | 28   | 29   | 32   | 34   | 34   | 34   |
| 루마니아    | 17      | 16   | 16   | 15   | 15   | 15   | 16   | 41         | 42   | 41   | 40   | 40   | 37   | 37   |
| 우크라이나   | 19      | 19   | 17   | -15  | 14   | 14   | 13   | 37         | 36   | 39   | 41   | 42   | 41   | 41   |
| 남아공     | 18      | 17   | 16   | 16   | 16   | 14   | 13   | 39         | 39   | 40   | 39   | 37   | 40   | 42   |
| 사우디아라비아 | 15      | 15   | 13   | 13   | 12   | 11   | 11   | 45         | 44   | 45   | 44   | 44   | 44   | 44   |
| 중국      | 12      | 11   | 11   | 10   | 9    | 10   | 11   | 48         | 48   | 47   | 47   | 46   | 45   | 45   |
| 태국      | 18      | 16   | 14   | 11   | 10   | 9    | 9    | 40         | 41   | 43   | 45   | 45   | 46   | 46   |
| 필리핀     | 12      | 11   | 10   | 9    | 8    | 8    | 7    | 47         | 47   | 48   | 48   | 48   | 48   | 47   |
| 페루      | 13      | 13   | 12   | 10   | 9    | 8    | 7    | 46         | 46   | 46   | 46   | 47   | 47   | 48   |
| 인도네시아   | 11      | 10   | 9    | 7    | 6    | 6    | 5    | 49         | 49   | 49   | 49   | 49   | 49   | 49   |
| 인도      | 11      | 9    | 8    | 7    | 6    | 6    | 5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자료: 한국전산원, 「2002국가정보화백서」, 2002.6.29, p.56.

전화의 보급률뿐만 아니라 인터넷 호스트 수를 통해서도 국가간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1997년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존재하는 인터넷 호스트 수는 10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2000년에 들어서는 250배로 증가하고 있다.

<표 6> 인터넷 호스트 격차(1,000명당)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
| OECD   | 23   | 34   | 55   | 82   |
| 비 OECD | 0.21 | 0.38 | 0.59 | 0.85 |

출처: OECD, *ibid*, p.8.

2000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격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 오세아니아 및 유럽 등의 지역에서는 20개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은 1/1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경우 북미의 1/500에도 못 미치는 인터넷 호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7> 지역별 인터넷 호스트 격차 (1,000명당)

| 구 분   | 1997.10 | 1998.10 | 1999.10 | 2000.10 |
|-------|---------|---------|---------|---------|
| 북미    | 46.28   | 69.74   | 116.41  | 168.68  |
| 오세아니아 | 26.81   | 34.76   | 43.84   | 59.16   |
| 유럽    | 6.13    | 9.45    | 13.41   | 20.22   |
| 중남미   | 0.48    | 0.91    | 1.67    | 2.53    |
| 아시아   | 0.53    | 0.87    | 1.28    | 1.96    |
| 아프리카  | 0.17    | 0.21    | 0.28    | 0.31    |

출처 : OECD, *ibid*, p.13.

## 2. 사회기반 격차

사회기반 격차로는, 기대수명, 교육 지수, 국내 총생산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활용할 수 있는데 <표 8>에서와 같이 UNDP에서 발간한 보고서(2001)에 따르면 세계 인간개발지수는 0.716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곳은 최부국 OECD로 0.928을 나타낸 반면 최빈국 개발도상국은 0.442로 나타나 0.486의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표 8> 지역 별 사회기반 격차

| 구 분               | 기대수명           | 문명율  | 교육지수 | 1인당 GDP(\$) | 인간개발지수 (HDI) |       |
|-------------------|----------------|------|------|-------------|--------------|-------|
| 세 계               | 66.7           | 79.2 | 0.74 | 6,980       | 0.716        |       |
| 개발<br>도상국         | 평 균            | 64.5 | 72.9 | 0.69        | 3,530        | 0.647 |
|                   | 최빈국            | 51.7 | 51.6 | 0.47        | 1,170        | 0.442 |
|                   | 아랍국가           | 66.4 | 61.3 | 0.62        | 4,550        | 0.648 |
|                   | 동아시아 및 태평양     | 69.2 | 85.3 | 0.81        | 3,950        | 0.719 |
|                   |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연안 | 69.6 | 87.8 | 0.83        | 6,880        | 0.760 |
|                   | 남아시아           | 62.5 | 55.1 | 0.54        | 2,280        | 0.564 |
|                   |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 48.8 | 59.6 | 0.54        | 1,640        | 0.467 |
| 동유럽국가 & CIS(구 소련) | 68.5           | 98.6 | 0.91 | 6,290       | 0.777        |       |
| OECD              | 평균             | 76.6 | 97.5 | 0.94        | 22,020       | 0.900 |
|                   | 최부국 OECD       | 78.0 | 98.9 | 0.97        | 26,050       | 0.928 |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p.144.

주 : 교육지수(문명율 + 초·중·고등 교육 참가비율을 기초로 계산)

인간개발지수(기대수명 + 문명율 + 교육 참가비율 + 1인당 GDP를 기초로 계산)



### 3. 정보기술수준 및 기술투자 격차

정보격차의 또 다른 측면으로는 통신망, 정보통신기기 등 정보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격차와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비의 격차 그리고 기술전문가 및 과학자 수의 격차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표 9>에서와 같이 OECD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간에는 인구 1인당 정보인프라 투자규모에서 11배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내 총생산액 대비 연구 개발비 규모나, 기술 전문가 및 과학자들의 수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지역별 정보기술수준 및 기술투자 격차

출처 : World Bank, op.cit, p.16.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사회 기반과 정보기술수준 및 인프라 투자와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 즉, 선진국의 경우 통신, 방송 등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등 각종 첨단서비스를 향유하고 있으며 그 발전속도도 빠른 반면에 개도국은 기본적인 통신수단인 전화수요조차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격차의 확대가 국가간 성장동력의 격차로 이어질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제발전의 격차는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정보격차는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정보사회에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Ⅲ.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국제 정보격차관련 사업유형

### 1. 국제기구

#### 1) 주요국제기구의 사업연방

주요국제기구인 ITU, World Bank, ADB, UNDP의 정보격차해소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국제기구 정보격차해소 관련 사업

| 구분                   | 사업명  | 내용  |
|----------------------|--|---|
| ITU                  | ITU-D  | 기술협력 및 지원활동을 통한 세계대전기통신개발을 증진-협력프로그램, Valleta 행동계획 프로그램, 최저개발국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등 |
| 세계은행<br>(WB)         | InfoDev  | 다자간 무상자금으로 IT를 통하여 개도국의 사회경제개발을 지원  |
|                      | GDG<br>(Global Development Gateway)                  | 개발문제에 대한 포털사이트로서 개도국, 공여국관료,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과 같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로 충족             |
|                      | WBI(World Bank Institute)                            | 개도국의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WorldLinks for Development(WorLD)프로그램을 수행               |
|                      | GDLN(Global Development Learning Network)            | 원거리교육센터(DLC)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정보격차를 해소(16개국에 DLC를 설치)        |
|                      | 아프리카가상대학(African Virtual University: AVU)            | 아프리카국가들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링과 과학분야에서의 양방향강의를 제공                                      |
|                      | 아프리카기술포럼   | 아프리카 하이테크 산업부양을 위한 아프리카 기업들을 위한 플랫폼 역할수행                                    |
|                      | Softbank Emerging Markets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과 Softbank가 개도국의 인터넷관련 비즈니스를 육성            |
| 아시아<br>개발은행<br>(ADB) | 네팔금융기관 능력강화관련 기술협력사업                                 | 금융정보 및 서비스의 IT부분에 대한 지원포함   |
|                      | 말레이시아 기술교육프로젝트                                       | 말레이시아 기술교육시스템의 질적 향상과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상자금지원                                  |
| 유엔개발<br>계획<br>(UNDP) | IT 개발프로그램  | 이집트, 남아공, 우크라이나에서 텔레센터 프로젝트 등과 같은 시범프로젝트를 수행                                |
|                      | 지속가능 개발네트워킹 프로그램(SDNP)                               | 개도국에서 네트워크 구축 및 인터넷연결, 콘텐츠 축적, 사용자훈련 등을 지원하는 국가별 프로그램                       |
|                      | 아프리카 인터넷시범프로그램(Internet Initiative for Africa (IIA)) | 아프리카지역국이 1997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강화하고 정보사회를 지향하는 정책개발을 지원        |
|                      | APDIP  | 아태 사회경제개발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IT활용을 지원하는 아태지역국의 사업                                   |
|                      | Digital Opportunity Initiative                       | DotForce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정보 및 지식격차의 범위와 시사점을 분석                                |

2) UN

2000년 4월의 “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에서 국가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UNITEs(United N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개도국 주민들에게 IT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디지털혁명의 혜택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해 기술과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다.<sup>7)</sup> 캐나다와 미국의 Net Corps, 그리고 대학 등과 같은 민간 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며, 초기 사업 비용은 일본과 핀란드가 제공하였으며, 2001년 기준 65여 자원봉사자가 13개국에 파견되었다.

### 3) UNDP

UNDP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가운데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SDNP(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ing Programme), 온라인 자원봉사(Online Volunteering)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SDNP의 이름으로 과테말라 원주민 여성들의 수공업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사업, 공공정보이용시설과 네트워크를 통한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온두라스), 레바논의 환경보호를 위한 웹 구축, 콜롬비아 중소기업인을 위한 전자 상거래 지원, IT 활용을 통한 카메론 여성의 자립 능력 향상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였다.<sup>8)</sup>

2000년 2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자원봉사(Online Volunteering)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서 개도국의 민간 단체의 정보통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웹을 통한 문서 번역, 데이터 처리 및 분석,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기술/법 자문, 그래픽 디자인 제공, 온라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작은 섬국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Network(SIDSNet), ICT를 활용한 발전 프로그램(ICT for Development Programme),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발전 프로그램(Asia-Pacific Development Information Program) 등이 있다.

### 4)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정보격차예소재단)

세계은행의 주도 아래 각국 정부 및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제공하여 정보격차 및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다. 한국은 일본·호주·독일·말리·인도·세계은행 등 6개국(기관)과 함께 창립회원으로 초대이사국에 진출하였으며, 초대 이사국은 각각 3년간 500만 달러를 출연하고 민간 사업자로는 블룸버그, 소프트뱅크 등도 출연에 동참하고 있다.<sup>9)</sup>

2001년 12월 기준 4,200만 달러가 조성되었으며, 파키스탄 정부도 향후 3년간 5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고 중국, 이탈리아, 르완다도 재단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sup>10)</sup>

첫째, ICT를 활용한 개도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총괄 포털 및 52개 개별 국가별 포털을 구축하는 사업인 Development Gateway Portal이 있다.

7) 한국국제협력단, 전계서, p.61.

8) [www.sdn.undp.org/about/](http://www.sdn.undp.org/about/)

9) 서보현·박진현·백지원·홍승연,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12, p.103.

10) 조정문, "APEC 역내 정보격차 현황 및 정보격차해소 사업현황", 한국정보문화센터, 2002, p.20.

둘째, 개도국에 설치 운영될 연구 및 훈련센터들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가, 사용자, 기금지원기관간 상호 정보교류를 제공하는 연구 및 훈련센터들간의 네트워크 지원이 있다.

셋째, 저가 컴퓨터(simputer), 고주파 무선 네트워크, 문화적으로 특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된 언어 번역 S/W 등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 지원이 있다.

넷째, 시민단체, 국가, 기업간 협력관계 및 시너지 효과 모색을 위한 정보공유를 위한 개발 포럼 운영이 있다.

## 5) ITU

ITU는 ITCI-DC(Internet Training Centers Initiative for Developing Countries)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민간 사업자, 관련 정부기관, 비영리 교육기관, 지역 ISP 등과 협력하여 개도국의 정보통신이용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03년까지 개도국 교육기관에 Internet Protocol 네트워킹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50개 훈련 센터를 개소할 것을 목표로 하며, Cisco Systems의 Cisco Networking Academy Program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11)</sup>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행동계획(An Action Plan for Bridging the Digital Divide)”가 채택되었다.<sup>12)</sup>

## 2. 지역기구의 IT개발협력

### 1) 동남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ASEAN은 1999년 11월 e-ASEAN 이니셔티브를 창설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가지 부문 즉, e-사회와 능력배양, 전자상거래 성장을 위한 촉진, Common Marketplace, 전자정부, AS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AII)의 주요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작업반을 만들었다.<sup>13)</sup> 그리고 소위 ASEAN e-space를 구축하고 세계 정보 경제에서 ASEAN이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기 위한 광범위한 종합적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e-ASEAN Task Force를 설치하였다. ASEAN의 10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2000년 11월 25일 e-ASEAN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하고 세계 경제 네트워크에 ASEAN을 연결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시작하였다. 동 협정으로 ASEAN 회원국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응용을 통하여 ASEAN 회원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회원국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며, ASEAN 지역연합체의 정신을 육성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역내 디지털 준비도(digital readiness)성취를 위한 실행 일정에 하의

11) 조정문, “대개도국 IT인력양성사업 실태 및 정보사회 정상화에 대한 의견”, 『정보사회정상화의 한국포럼』, UNESCO·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05 참조.

12) 서보현·박진현·백지원·홍승연, 전거서, p.104.

1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해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흐름과 변화』, 2003.09, p.35.

하게 되었다. 동 협정은 디지털 준비도 성취를 위한 지역연합체의 전체적인 접근방안으로서 ①인터넷 연결, ②현지 콘텐츠, ③전자 상거래 환경, ④IT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상설 마켓 플레이스, ⑤인적 자원 개발 및 전자 정부(e-governance)의 여섯 개 영역에서의 실행 메카니즘의 역할을 하고 있다.<sup>14)</sup>

<표 11> 시범 프로젝트

| 구분               | 프로젝트  |
|------------------|---|
| 역내 정보 인프라 구축 촉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 eTourism Portal: <a href="http://www.eASEANtravel.com">www.eASEANtravel.com</a></li> <li>· ASEANWorld.com의 Regional Master Plan: <a href="http://www.ASEANWorld.com">www.ASEANWorld.com</a></li> <li>· EastASEANbiz.net - <a href="http://www.EastASEANbiz.net">www.EastASEANbiz.net</a></li> <li>· GM SupplyPower - <a href="http://www.gmsupplypower.com">www.gmsupplypower.com</a></li> <li>· Knowledge Workers Exchange (KWX)</li> <li>· Real Estate in Cyberspace</li> <li>· WeASEAN.com - <a href="http://www.WeASEAN.com">www.WeASEAN.com</a></li> <li>· SESAMI.com - <a href="http://www.SESAMI.com">www.SESAMI.com</a></li> </ul> |
| 역량 강화와 e-Socie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 Educations Online - <a href="http://asean.ofthailand.com">asean.ofthailand.com</a></li> <li>· ASEAN Information Network(AINET)</li> <li>· ASEAN SchoolNet</li> <li>· e-Entrepreneurship Training Program - <a href="http://www.aseantraining.net">www.aseantraining.net</a></li> <li>· ASEAN Incubator Network</li> <li>· ASEAN Training Network - <a href="http://www.aseantraining.net">www.aseantraining.net</a></li> <li>· ArtPostAsia - <a href="http://www.artpostasia.com/web">www.artpostasia.com/web</a></li> <li>· LifeASEAN</li> </ul>  |
| e-Governanc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yberlaw Training Workshop for legislators, government counsels &amp; judges of CMLV</li> </ul>  |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02.12사회의 IT개발협력」, 2001.07, pp.65-66.

특히 2001년 11월 ASEAN+3 (ASEAN 및 한·중·일)에서 우리 정부는 역내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①동아시아 국가간 정보격차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금(Digital Bridge Fund)설치, ②동아시아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 ③동아시아 IT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ASEAN은 역내 기술 개발에 관하여 IBM과 MOU를 체결하였는데 IBM은 정보기술에 관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ASEM, [www.asem3.org](http://www.asem3.org))

ASEM에서는 정보격차 문제를 선·개도국간 e-business를 가로막는 신 교역장벽으로 간주하고, 동 문제 해결을 ASEM 회원국간 경제통상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회 ASEM 정상회의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간·계층간 빈부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빈부격차의 확대는 환경파괴와 인류의 평화를 저해하

14) 한국국제협력단, 전계서, p.65.

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중심으로 ①트랜스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②정보격차 해소 사업, ③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이 제안되어 승인되었고<sup>15)</sup> 2001년 3월에는 2000년 10월의 ASEM 서울 회의에서 합의된 한·일 양국 정부 공동주최의 「ASEM Seminar on Digital Opportunity」가 동경에서 개최되었다.<sup>16)</sup>

### 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PEC차원에서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논의는 1995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sup>17)</sup> APEC은 전자상거래 준비도 측정, 문서 없는 무역, 개별국 실행계획,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야에서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인적 자원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환경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의제를 설정하였으며, APEC 회원국간, 기업, 정부, 지역연합체내 광범위한 협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회원국의 도시, 지방, 농촌 지역을 망라하여 주민들이 2010년까지 개인적 혹은 마을 단위로 정보 및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 프레임 개발, 실행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단계로서 2005년까지 개인적 혹은 마을 단위의 정보 접근 인원을 세 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APEC TEL은 2001년 3월 개최된 제23차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정보격차 및 기술취약성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청사진 초안(Draft Digital Divide Blueprint for Action)”을 회람시키기도 하였다.<sup>18)</sup>

<표 12> 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 구분  | 내용   |
|---|--|
| 전자상거래 준비도 측정<br>(E-Commerce Readiness Assessments)  | APEC 지역 내의 바람직한 전자상거래 개발을 위하여 회원국들이 각국의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상됨.                                |
| BizApec.com ( <a href="http://www.bizape.com">http://www.bizape.com</a> )<br>기술개발센터 네트워크<br>(Network of Skills Development Centres) | 지역내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one-stop 정보 포털 사이트<br>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기업의 비즈니스 필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
| APEC Cyber Education Network  | 교육분야에서 IT활용에 특화된 연구기관과 교사 양성 기관을 연결하기 위해 설치  |
| APEC 청년 인터넷 봉사단 프로그램<br>(APEC Youth Internet Volunteer Program)   | 정보화가 뒤진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 획득, 연구조사, 기타 교육적 목적에 인터넷 활용 방법에 관한 교육훈련 제공을 위하여 을 지원함. 동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15) 정인억·박성훈·김태은·백지원·나항렬, 「세계 정보격차현황 및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2001.12, p.77.

16) [www.asem.org](http://www.asem.org)

17) 정인억·박성훈·김태은·백지원·나항렬, 전제서, p.79.

18) APEC TEL, “Draft Report to Plenary on Digital Divide,” 2001.

## 2. 선진국의 IT인력양성 사업 협력

### 1) 미국<sup>19)</sup>

#### (1) Internet for Economic Development (IED) Initiative

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은 IT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2001년 한해 동안 125 국가에 450여 전략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75개 국가에는 상주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IED Initiative는 1998년 후반에 개발도상국에게 인터넷 및 전자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디지털 기회를 통하여 개발도상국 국가내 및 국가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추진사업이다.

현재 21개국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999년 중반에 불가리아, 이집트, 가나 등 11개국, 2000년 3월에는 인도, 동년 6월에는 요르단 그리고 G-8 정상회담이 열렸던 7월에 방글라데시,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등 8개국과 협력하고 있다.

<표 13> IED 이니셔티브 지원 국가

(2002년 9월 기준)

| 구분                 | 국가명  |
|--------------------|--|
| 아프리카 (9)           | 가나, 기니, 케냐, 말리,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
| 아시아 & 근동 (6)       |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모로코                  |
| 유럽 & 유라시아 (2)      | 불가리아, 루마니아                                       |
|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연안 (4) |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

출처: www.usaid.gov

<표 14> IED의 4가지 접근<sup>20)</sup>

| 구분   | 내용   |
|------|--|
| 정책   |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쟁친화적인 정책과 법적 규제 환경의 조성을 지원(FCC의 도움을 받아 USAID/Jamaica는 자메이카 정부가 독점을 파괴하는 통신법을 제정하고 2개의 이동 통신사업자를 지정하는 노력을 지원) |
| 민간부문 | 멀리 떨어진 지역 및 농촌지역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민간사업을 지원, 특히 가나, 과테말라, 하이티 등에 지역접근센터, 혹은 telecenter 등을 구축  |
| 인적자원 | 소규모 자영업자, 지식 근로자, 정책 입안자 및 규제 관련 종사자 등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데, 개도국 IT 훈련 제공 프로그램인 USTTI 경비 및 참가자 교통비를 지원                                  |
| 프로그램 | 전자상거래, 원격교육 및 진료, 환경 감시, 정부 서비스 향상 등 인터넷 활용을 지원하고 있음   |

19) 조정문, 전개서, 참조.

20) www.usaid.gov/info\_technology/ied/

IED는 개발도상국들이 자신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계점(threshold)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리고 아이디어의 공유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IED는 정책(Policy), 민간부문(Private Sector), 인적자원(People) 그리고 프로그램(Program)이라는 4가지 접근(4 P's Approach)을 취하고 있다.

(2) 그 밖의 미국의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들

기타 미국에서 정보격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기타 미국의 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
| Africal Link  | USAID의 직원과 아프리카 파트너 국가들을 인터넷에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 인력에 대한 인터넷 접속 및 정보관리 지원을 목적  |
| Greater Horn of Africa Initiative (GHAI)                  | 식량 확보에 관심이 있는 동북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 South Africa Regional Telecommunications Restructuring    | 5년간 15백만불을 투입하여 20여개국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인터넷에 연결시키는 사업인 'Leland Initiative'가 있고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에 속한 국가들이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정보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지원           |
| Rural Information Technology Expansion Program            | 5년간 5백만불을 지원하여 인도의 수 개 마을에 대한 인터넷 접속과 IT 응용을 확대하는 사업  |
| The Internet Access and Training Program (IATP)           | Armenia, Azerbaijan, Belarus, Georgia, Kazakhstan, Kyrgyzstan, Moldova, Tajikistan, Turkmenistan, Ukraine, and Uzbekistan 등 New Independent States(NIS) 국가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교류, 교육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 |
| United States Telecommunication Training Institute(USTTI) | 160 개도국에 7,000명 이상의 전문가 육성을 지원한 사업으로 미국내 통신사업자와 연방정부가 협력하여 개도국의 통신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

2) EU와 영국

(1) EU

EU차원에서도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LIS, NATP(New Approached to Telecommunications Policy -Euro-Mediterranean Regional Programme), EUMEDIS(Euro-Mediterranean Information Society), Asia IT&C등이다.

@LIS는 1999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EU, Latin America와 The Carribbean 국가들의 수반이 모여 협의한 사항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EU와 라틴아메리카간의 ICT 협력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



기간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이며 정책, 규제 및 e-Governance에 대한 대화, 표준에 대한 대화, 가상정보사회전망대(Virtual Information Society Observatory): 정보, 기술 및 노하우 교환, 양지역 연구기관의 연결, 전자채전자정부, 원격교육, 문화적 다양성, 건강 및 e-Inclusion 등의 분야에서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sup>21)</sup>

NATP는 지중해국가들의 통신시장 개방과 민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입안자와 결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EU와 지중해국가(Mediterranean Partners)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사업은 Regional Telecommunication Forum 운영, 워크숍(3개), 기술중심세미나(5개), 학습여행(7개), 교육효과향상을 위한 훈련후의 현장교육 등을 포함하는 Training for Regional Policymakers,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위한 Virtual Mediterranean Telecommunication Observatory 설립과 정보통신지표 및 국가간 비교를 위한 정보교환 및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분야에서의 정보수집과 교환이다.

EUMEDIS는 1995년 바로셀로나 Euro-Mediterranean Conference에서 지중해국가의 통신 및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그후 1999년 Comprehensive Regional MEDA Initiative를 EU가 승인함으로써 시작된 사업이다. 그 주요내용은 정보사회를 위한 국가전략개발을 위한 Network of Mediterranean Information Society Focal Point, EU와 지중해국가의 연구소 네트워크연결, 지역정보사회 시범사업이며 사업비의 80%는 EU가 부담하고 20%는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은 대학, 연구소, 병원, 상공회의소, 산업체, NGO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ICT기술의 교육응용, 전자상거래와 경제협력, 공중보건, 멀티미디어를 통한 문화관광 유산에 접근, 산업혁신을 위한 ICT 응용 등의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sup>22)</sup>

Asia IT & C는 유럽과 아시아간 공동이익을 위한 Co-financing program으로서 최소 2개의 EC국가와 1개의 아시아국가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 아시아국가는 서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이며 사업추진영역은 사회, 전자상거래, 교육, 교통, 건강, 농업, 관광, 전자생산업이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 단체, 상공인단체, NGO, 중소기업 등이며 구체적인 사업은 정보교류활동, 단기강좌(대학수준), 유럽과 아시아간 정보 Traffic 확보 및 지원, 유럽의 IT&C사업 및 프로그램과의 협력, 유럽과 아시아간 규제 및 법제도의 이해, 실용적인 시범사업 등이다.<sup>23)</sup>

## (2) 영국

영국의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는 '빈곤퇴치, 빈국을 위한 세계화(Eliminating World Poverty: Making Globalisation Work for the Poor)'라는 보고서를 발간한바 있으며, DFID 산하 Aid Policy Department에 지식정책반(Knowledge Policy Unit)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원격교육, 정보시스템, 원격진료, 인터넷 연결 확대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IT를 개발협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1) europa.eu.int/comm/europeaid/projects/alis

22) europa.eu.int/information\_society

23) 한국전산원, 「APII, TEIN망 고도화 및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연구」, 2002.11, pp.110-112.

IT 프로젝트로는 Cisco, Marconi 등과 같은 기업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Infundo*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개도국의 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IT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남부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특히 감비아, 남아공, 르완다, 우간다의 4개국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UKTA(United Kingdom Telecommunications Academy)는 영국내 통신회사들과 몇 개 대학간의 협력사업으로 영국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후원을 받고 있는데 수업료는 면제이나 영국내 생활 및 주거비는 참가자가 부담하고 수업기간은 1일부터 2년까지 다양하고 교과과정은 커뮤니케이션 일반, 라디오·휴대전화 커뮤니케이션, 경영 및 통상(Management and Commerce), 커뮤니케이션 장비설치 등으로 이루어져있다.<sup>24)</sup>

### 3) 일본

개도국에 대한 정보통신 기술 협력사업으로는 총무성과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가 후원하는 사업인 개도국 인력 초청 기술 연수 사업인 *APII Technology Center*가 운영되고 있다.<sup>25)</sup> 일본의 ATR-SLT(Advanced Tele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Spoken Language Translation Research Labs)와 태국의 NECTEC(National Electronics and Computer Technology Center)간 협력 사업인 '태국어 음성인식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태국 소재 AIT(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와 일본의 CRL (Communications Research Laboratory)간 협력 사업인 '아시아 국가들간 첨단 이동통신기술 확산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sup>26)</sup>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Nepal Telecommunications Corporation*과 동경 대학이 협력하는 사업인 'GIS를 활용한 통신 서비스 제공 연구사업'등이 있다.

이외에 일본은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150억 달러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00년 7월 일본 큐슈-오키나와에서 개최된 G-8 *Kyushu-Okinawa Summit*에서는 국제 정보사회를 위한 오키나와 선언을 채택하였고,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협력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인적자원 양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Southeast Asia Engineering Education Development Network(SEED-Net)*은 아세안국가의 19개 대학과 협력하여 IT 관련 분야 석박사 학생들을 초청하거나 일본의 학자 및 교수를 협력 국가 대학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또한 인적 자원 협력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몽고에 인적 자원 협력 센터를 구축하여 일본어 강좌뿐만 아니라 IT 활용법을 포함한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협력을 통한 지원(JSPP21)도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와 50대 50의 비용 분담 조건으로 *Japan-Singapore Partnership Program for the 21 Century(JSPP21)*을 운영하여 20여개 강좌를 개설하여 인접 국가로부터 훈련생을 수

24) [www.ukta.co.uk/academy](http://www.ukta.co.uk/academy)

25) [www.jica.go.jp](http://www.jica.go.jp)

26)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해의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흐름과 변화」, 2003.09, p.141.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IV. 우리나라의 국제 정보격차관련 사업유형

### 1.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주요사업

#### 1) 연수생초청사업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긴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연수생초청사업은 개도국의 인적자원 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HRD)에 가장 유효한 국제협력사업의 하나로서 시행되고 있다. 핵심 연수실시분야는 국가발전전략, 경제사회개발 등 정책수립 능력배양 및 개발 들췌, 농림수산, 공업, 무역 및 투자, 중소기업, 과학기술, 교통통신, 주택, 지역 및 도시개발 등 산업진흥 및 국토개발 셋췌, 행정제도, 관세 및 조세제도,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제도인구, 보건의료, 등 공공행정 및 사회서비스 확충, 넷췌,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등 신기술분야 연수와 전력 및 전기, 기계 자동차, 산업디자인, 미국 생산 등 산업기술 및 직업훈련, 다섯췌, 외교, 산업 및 통상, 교육, 문화 등 개발협력 파트너쉽 구축이다.

협력단은 '91년 설립이후부터 '02년까지 총 14,281명의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하였고 2002년에는 최근의 정보화 및 지식기반 사회 추세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개발능력 확충은 물론, 국가간 지식격차의 축소를 통한 개발격차 완화에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 등 정보통신분야 과정을 포함하여 총 145개 과정에 2,408명의 인력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2003년에는 사업예산을 11,603백만원(9,282천불)으로 확충하여 142개 과정에 2,550명의 연수생을 초청하였다. 2003년도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정책 및 기술분야의 연수과정을 세부분야로 특화하여 보다 전문화하는 한편 개도국의 소위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Information Technology)분야의 연수를 더욱 확대하였다.

점증하는 개도국의 연수수요에 부응하고 연수효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단은 '99.3.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에 소재한 국제협력연수센터(International Cooperation Training Center/ICTC)를 개원하였는데, 동 연수센터의 개원으로 연수생초청사업의 예산절감은 물론, 체계적인 연수실시로 연수사업의 양적, 질적 도약을 거두고 있다.

#### 2) 전문인력파견사업

전문가파견사업은 우리나라 전문가를 개발도상국에 일정기간(1개월 내지 1년간) 파견하여 기술지도, 연구, 강의, 자문, 조사 및 프로젝트 실시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개발경험과 전문지식을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67년 이디오피아에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를 최초로 파견한 이래 매년 재외 공관을 통해 전문가 파견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연간 40명 이상의 장·단기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기간동안 필요한 체제비등 재반 경비를 협력단이 부담하고 있다. 동 사업의 형태는 개도국 정부의 파견요청과 양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서 파견하는 국별 파견과 국제기구로부터의 파견요청과 동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파견하는 국제기구 파견으로 나누어지며 파견대상 기관은 개도국 정부 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및 대학 등의 교육기관,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메콩강위원회(MRC), 아시아 공과대학원(AIT)등의 국제기구이다. 동 사업은 개도국내 관련분야의 많은 인사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단기간내에 전달할 수 있는 효과도 있어 개도국 정부들로부터 파견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3) 봉사단파견사업

오늘날 세계는 빈곤한 기아,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들로 인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때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상호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데 이러한 때에 한국해외봉사단원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은 개도국들과의 상호협력의 정신과 순수한 봉사이념을 바탕으로 파견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현지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담당하고자 하는 책임과 협력의 영역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해외봉사단원은 일반봉사단원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제협력요원으로 나뉘어지는데 국제협력요원은 다시 의료활동을 하는 국제협력의사(협력의사)와 일반 봉사활동을 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협력요원)으로 나뉘어진다.

### 4) 물자지원사업

물자지원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상환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증여의 형태로 물자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자지원사업에는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수원국의 공공개발사업에 필요하거나 인간기본욕구(BHN : Basic Human Needs)의 충족에 필요한 물자 또는 천재지변, 질병 등의 재난시 구호금 및 구호품 지원이 포함된다.

물자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수원국에 물자지원시 가급적 BHN 관련 품목 또는 내구성 생산재 품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지원물자는 국산품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수출과 연계 가능한 품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셋째, 소량 다품목 요청방식을 지양하고, 단일품목 위주로 지원하여 지원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유망 지원품목 목록정비를 통해 지원품목 및 사양 선정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지원이 물품을 신속

정확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수원국과 협의하고, 요청된 지원물품의 선적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 지원된 물자의 활용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속적 지원효과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물자지원사업은 농기계, 차량, 컴퓨터, 농기계, 의료기기 등 국산물자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일반 물자지원사업과, 전쟁·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당한 국가에 구호금 또는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재난구호 사업으로 구분된다.

### 5) 개발조사(프로젝트)사업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개발조사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반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주는 기술 또는 연구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개발도상국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제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내에서 분석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는 사업이다.

개발조사사업의 대상 분야는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도로·공항 및 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시설, 그리고 농림·수산, 자원·에너지, 환경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개발조사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서는 개발도상국측에서 보면 지역개발 또는 국토개발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지형도, 지질도 등 기초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는 이런 조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조사를 시행하여 수혜국 정책판단의 기본자료로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건설 등 각종 프로젝트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재원부족으로 World Bank, ADB 또는 선진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거나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나 개도국은 이와 같은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러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도국의 정책판단 및 프로젝트 실시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 2.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1) 해외 IT인력 초청연수사업

해외 IT인력 초청연수사업은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국제연구협력단에서 개도국 정보격차해소 및 국내 IT산업의 홍보를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주 대상국은 APEC, APT, ASEAN 등의 회원국 중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초청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대상자로는 개도국의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결정자, 규제 담당자, 공공사업체의 중간관리자 및 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 IT인력 초청연수사업에는 '해외진출 전략국가 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사업'과 'APT 개도국 정보통신인력 초청연수사업'의 단기 초청연수사업과 '차세대 통신지도자 초청교육사업'의 장기 연수사업이 있다.<sup>27)</sup>

## 2) 동아시아정보격차해소사업<sup>28)</sup>

IT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SIS) 등의 국제회의에서도 정보격차해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도국 지원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식정보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동참하고 IT강국의 이미지 제고 및 해외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도국의 정보격차해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ASEM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ASEAN+3 정상 회의 등에서 개도국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제5차 ASEAN+3 정상회의(2001. 11. 24) 시, 김대중 대통령은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을 제안하고 2002년부터 매년 100만 달러씩 5년간 총 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동아시아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2년 10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적인 ASEAN+3 프로젝트로서 승인받았다.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은 총괄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국제정보격차 심포지엄 개최, 개도국 지원 IT정책·기술·자문, 동아시아 정보접근센터 구축, ASEAN+3 민간협의회 운영지원 등 5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다.

## 3.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 1)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sup>29)</sup>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은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정보화 후발 국가들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파견하는 한국의 IT전문가들로서, 파견국 현지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컴퓨터, 인터넷교육), 한국의 정보화 및 IT발전상 홍보 등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IT강국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공동

27) 이지용,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해외 IT인력 초청연수사업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5권 22호(통권 337호), 2003.12.01, p.28.

28)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 서보현·박진현·백지원·홍승연, 전계서, pp.111-208.

29)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문헌을 참조. 정보통신부·한국문화정보센터, 「2002년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활동보고서」, 2002.12.31.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한다.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의 활동내용으로 첫째, 정보화교육인데 컴퓨터일반교육, 인터넷 활용, 홈페이지 제작, 네트워크 구성 등 정보화 활용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IT Korea 홍보로서 IT 강국 한국의 정보화 현황과 발전상을 홍보하고 Global Leader e-Korea의 비전과 청사진을 홍보한다. 셋째, 문화교류로서 한국의 고유한 전통문화 및 선진 정보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현지인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2)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지원사업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간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IT산업의 장기적인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개도국 정보접근센터구축 지원사업은 ASEAN 등 IT 후발국가에 컴퓨터교육장, 인터넷플라자 등과 같은 IT 교육 및 홍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간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IT 산업의 장기적인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 3) 해외 IT전문가 중장기 양성사업

해외 IT전문가 중장기 양성사업은 주요 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IT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 친화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IT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인데 IT분야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공무원, 주요 업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IT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 친화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IT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IT Korea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해외 언론인 IT투어

해외 언론인 IT투어는 개도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핵심 계층인 저명한 언론인을 대상으로 국내 IT산업의 발전상을 홍보하여 IT 강국 한국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을 강화한다. 글로벌 리더 e-KOREA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국내 IT산업의 용이한 해외진출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4. 정보격차 국제협력사업의 비교

이상과 같이 KOICA, KISDI, KADO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격차해소사업의 유형과 사업의 개요를 비교하면 <표 16>과 같은데 KOICA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사업에 이어 연수생초청사업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고 KISDI의 경우에는 차세대통신지도자초청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다. 그리고

KADO의 경우에는 해외IT전문가 중장기 양성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다.

<표 16> 정보격차 국제협력 사업현황(IT분야)

(200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부처        | 수행 기관 | 사업명                             | 사업개요  | 예산액   | 총액     |
|-----------|-------|---------------------------------|---|-------|--------|
| 외교<br>통상부 | KOICA | 연수생초청사업                         | 공무원 및 기술자 초청 IT연수 사업<br>※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연수실시     | 3,727 | 17,272 |
|           |       | 전문가파견사업                         | IT산업 및 정책 전문가 파견                              | 378   |        |
|           |       | 봉사단파견사업                         | 컴퓨터 및 전산분야 봉사단파견                              | 3,100 |        |
|           |       | 물자지원사업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기본장비지원                           | 1,400 |        |
|           |       | 프로젝트                            | 컴퓨터센터 및 IT훈련센터지원사업                            | 8,667 |        |
| 정보<br>통신부 | KISDI | 동아시아<br>정보격차해소특별사업              | ASEAN +3에 제청되어 정보화 정책·기술자문<br>위주의 사업수행        | 700   | 3,780  |
|           |       | 월드뱅크<br>정보격차해소사업                | WB와 DGF와의 연계를 통한 국내 정보화교육<br>훈련센터 운영          | 1,800 |        |
|           |       | 차세대통신지도자<br>초청교육                | CDMA사용국가 전문가양성초청사업                            | 4,800 |        |
|           |       | IT인력초청연수사업                      | 고위급 대상의 IT교육사업                                | 800   |        |
|           | KADO  | 해외IT전문가 중장기<br>양성사업             | 정보화 CIO, e-Government 건설, Engineering과<br>정교육 | 2,560 | 5,720  |
|           |       |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 국내IT우수성확보 및 봉사활동 ASEAN+3약속사업                  | 1,505 |        |
|           |       | 개도국<br>정보접근센터구축사업               | 컴퓨터실습 및 체험시설지원                                | 1,375 |        |
|           |       | 해외언론인<br>IT투어프로그램               | IT Korea의 이미지홍보를 위한 홍보사업                      | 280   |        |
| 산업<br>자원부 | KOTRA | 해외시장개척요원<br>파견사업(중기청,<br>판로지원과) | IT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사업<br>(115명)            | 1,000 |        |

## V. 결론-우리나라의 국제정보격차사업의 효율화방안

첫째, 사업추진체계의 업무분담의 명확화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도국의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은 예산상의 제약, 조직 및 인력의 제약 등의 한계로 인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관련정부부처나 관련기관, 컨설팅회사 등과의 업무협정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발굴이나 사업의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 영역에 따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재정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수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도국에 대한 정보격차지원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이벤트성 사업이나 형식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시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수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e-Biz강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를 통한 홍보전략을 수행하여야 한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한국의 이미지가 제고되어 국가브랜드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IT 접목을 통한 높은 기술력의 입증이라는 성과를 거둔 만큼 e-Biz강국으로서의 국가이미지를 성공적인 개도국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시설지원 및 인력양성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저개발국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시설의 운용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격차의 해소사업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사업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격차의 해소는 기본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인 인적자원의 능력의 배양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정보격차사업을 국제기구와의 공동프로젝트로 진행하여야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UNDP, ADB, World Bank, ITU 등의 국제기구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강홍렬·차남경·강상현·김은미,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경제적 함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12.
- 서보현·박진현·백지원·홍승연,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 결과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12.
- 이지용,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해외 IT인력 초청연수사업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5권 22호(통권 337호), 2003.12.1.
- 정보통신부·한국문화정보센터, 「2002년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활동보고서」, 2002.12.31.
- 정인익·박성훈·김태은·백지원·나항렬, 「세계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현황 및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12.
- 정인익·박성훈·김태은·백지원·나항렬, 「세계 정보격차현황 및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2001.12.
- 조정문, “APEC 역내 정보격차 현황 및 정보격차해소 사업현황”, 한국정보문화센터, 2002.
- 조정문, “개도국 IT인력양성사업 실태 및 정보사회 정상화에 대한 의견”, 「정보사회정상회의 한국

- 포럼, UNESCO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05.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사회의 IT개발협력, 2001.07.
- 한국전산원, 「2002국가정보화백서」, 2002.6.29.
- 한국전산원, 「APII, TEIN망 고도화 및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연구」, 2002.11.
- 한국전산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방안보고서」, 2002.12.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해외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흐름과 변화」, 2003.09.
- APEC TEL, "Draft Report to Plenary on Digital Divide," 2001.
- [europa.eu.int/comm/europeaid/projects/alis](http://europa.eu.int/comm/europeaid/projects/alis)
- [europa.eu.int/information\\_society](http://europa.eu.int/information_society)
- OECD,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2001.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 World Bank, "The Networking Revolution Networking revolution : Opportunity and Challenges for Developing Countries," *InfoDev Working Paper*, 2000.
- [www.asem.org](http://www.asem.org)
- [www.jica.go.jp](http://www.jica.go.jp)
- [www.sdn.undp.org/about/](http://www.sdn.undp.org/about/)
- [www.ukta.co.uk/academy](http://www.ukta.co.uk/academy)
- [www.usaid.gov](http://www.usaid.gov)
- [www.usaid.gov/info\\_technology/ied/](http://www.usaid.gov/info_technology/ied/)